불자 세상보기

의료대란…결국 인명사고로

"생명보다 귀한 것 없다"

의사들이 20일 집단 폐업에 들어가면서 우려했던 대로 심각한 혼란상태가 빚어졌다. 말 그대로 의료대란이었다. 교통사고 중환자가 의사를 찾아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는가 하면, 용인의 한 산모는 무려 33시간 서울과 경기 지역의 병원을 오가다 겨우 출산하기도 했고, 강도 피습을 당한 40대 남자는 15시간만에 겨우 수술을 받아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결국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지병을 앓아오던 한 30대 남자가 몇 군데 병원을 전전하다 수술을 받았지만 시기를 놓쳐 결국 사망했고, 70대 노인은 병원을 찾아 헤맨 끝에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됐으나 수술실로 향하던 중 숨졌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사태에 국민들은 극도로 분노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폐업을 한다는 것은 '나만 배부르면 된다'는 철저한 집단 이기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가 내놓은 의약분업안에 대해 의사들이 불만을 가질 소지는 분명히 있다. 하지만 폐업이라는 극한 투쟁은 제대로 된 의약분업이라는 명분보다는 '밥그릇 챙기기' 차원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그랜저를 탔는데 어떻게 소나타를 탈 수 있느냐는 것인가? 아니면 밥을 굶게 돼 어쩔 수 없다는 것인가?

〈법구비유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옛날 현제라는 나라에서 부처님은 스스로 병든 비구의 몸을 씻어 주며 간병을 했다. 그러자 그곳 왕과 신하가 부처님에게 "어찌 그토록 존귀한 어른이 병들어 더러워진 비구의 몸을 손수 씻으시나이까"하고 물었다.

이에 부처님은 왕과 신하들에게 말했다. "여래가 세상에 나타난 까닭은 바로 이런 불행에 빠져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함이니 모든 병든 사람과 가난한 사람, 불행한 사람을 공양하면 그 복이 무한해서 소원이 뜻대로 이루어지고 점차 공덕이 차 깨달음을 얻게 되리라."

부처님이 지위를 버리고 몸소 병자를 돌본 것은 생명보다 더 존귀한 것이 없음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그런 부처님이 의사들의 폐업을 직접 보았더라면 과연 무엇이라 했을까.

대부분 의사들이 폐업에 동참한 가운데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소속 의사들은 소신대로 진료에 나서기도 했다. 이들이 동료 의사들의 온갖 협박을 마다하고 진료를 멈추지 않은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강원도 양양에서 18년째 산골을 왕진하는 할아버지 의사 이기섭씨(88)가 새삼 존경을 받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 간단하다. '의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환자를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책임의식 때문이다.

한 의과대 교수는 홈페이지에서 전공의들에게 보내는 다음과 같은 폐업반대의 글을 올렸었다. "의사들의 진정한 권력은 지식이나 집단적 단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에 대한 한없는 애정과 헌신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다. 환자에 대한 애정과 헌신, 그것이 의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니겠는가. 〈범망경〉은 의사의 도리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온갖 병자를 보았을 때는 언제나 이를 공양해야 한다. 여덟 복전 중에서도 간병의 복전이 으뜸이니 갖가지 병고를 다 보양해서 낫게 해야 된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폐업이 시작된 20일,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서는 전공의 2백여 명이 시위하듯 가운을 1층 로비에 벗어 정렬해 놓은 채 병원을 떠났다.

◇종단협 사무국장 법현스님과 경불련 부회장 종후스님 등은 22일 서울대학병원을 방문, 교수들의 폐업동참 자제를 촉구했다.

육군 상사의 '장애아 입양운동'

〈대지〉의 작가 펄벅은 위대한 문학가인 동시에 위대한 어머니이기도 했다. 〈어머니여, 한탄하지 마세요〉라는 책에서 펄벅은 지능발달이 멈춘 장애인인 자신의 딸에 대해서 쓰고 있다. 딸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 헤매던 펄벅은 마침내 미국 내의 학교란 학교는 모두 방문한 끝에 뉴저지주의 한 학교를 발견해 냈다. 딸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펄벅을 위대한 문학가로 만드는 원동력이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장애 입양아의 육아일기를 가족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입양운동'을 펼치고 있는 현역 육군 상사의 얘기는 펄벅의 딸에 대한 사랑 이상으로 감동을 준다. 육군 제50사단 강문구 상사(34)와 부인 안수현씨 부부는 5살난 아들이 있었음에도 96년초 생후 2개월된 여자아이를 입양하고 '예은'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러나 2년 전 예은이가 이상한 몸짓을 하고 식사량이 보통이 넘는 행동장애와 섭식장애 상태를 보이자 강상사 부부는 예은이를 친딸 이상으로 돌봤고, 그 결과 완쾌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리고는 최근 자신들이 예은이와 함께 지내온 지난 5년간의 이야기를 담은 인터넷 사이트(www.sky528.pe.kr)를 만들어 본격적인 입양운동에 나섰다. 강상사는 40이 넘으면 장애아를 한 명 더 입양해 키울 생각이다.

불교의 수행은 애욕의 집착을 끊는 것이지 사랑의 마음을 저버리는 것은 아니다. 남을 사랑함으로써 아름다운 삶과 아름다운 세상을 사는 것. 강상사 부부의 예은이에 대한 사랑이야말로 그런 정토를 가꿔가는 아름다운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사제지간 서로 고발

학교 유리창을 깨뜨린 학생을 체벌한 교사들이 한 학생의 인터넷 신고로 형사처벌을 받자 학교측이 당시 유리창을 깬 학생을 경찰에 고발한 보기 드문 사건이 지난 20일 전남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해 충격을 주었다. 이즘되면 '사제지간'이 아니라 '원수지간'이라는 말이 나올 법도 하다.

부처님은 품성이 미련하고 3년동안이나 글귀 하나 제대로 외우지 못하는 '반특'이라는 비구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일체 중생이 모두 부처가 될 성품을 가지고 있음을 일러주고, 그것을 찾아내도록 이끄는 것이 스승이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교사는 우리 교육의 마지막 희망이다. 본래 선하다면 악에 물들지 않도록 하고, 악하다면 교육을 통해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한다. 결코 포기해서는 안된다.

충북도 세금남용 '빈축'

명예퇴직 공무원 동남아 위로여행

충북도가 지난 15일부터 5박6일간 일정으로 6월말 명예퇴직하는 공무원 41명을 대상으로 등남아 '위로여행'을 실시해서 빈축을 샀다.

이뿐만 아니다. 충북도 의회는 요즘 7500여만원을 들여 의장실 개조에 한창이고, 청주시는 지난달 말 공무원 사기진작 명목으로 콘도회원권을 8000여만원에 구입했다.

〈화엄경〉에 "작은 악을 대단치 않게 알아 재앙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물방울은 작지만, 시간이 흐르면 차츰 큰 그릇도 채우고 만다"는 가르침이 있다.

관계자들은 "위로여행과 사기진작을 위해 그런 것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세금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또 어떤 민폐를 끼칠지를 생각하면 〈화엄경〉의 가르침은 우리 공직자에게 더욱 절실하기만 하다.

"15억명 1달러 하루살이"

국제 노동기구 발표 전세계 60억 인구 가운데 4분의 1인 15억이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국제노동기구(ILO)가 21일 발표했다.

ILO는 또 개발도상국의 경우 인구 3분의 1이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고 있고, 성인 중 30%가 문맹이며 인구 30%가 음료수를 접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화엄경〉에는 굶주려 목숨이 위태로운 가난한 사람에게 보살이 자신의 살을 베어 보시함으로써 구휼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모든 강물이 바다에 이르면 강으로서의 이름이 없어지듯, 모든 사람도 불법이라는 바다에서는 평등하다'는 부처님 가르침을 따른다면 이들의 고통을 '남의 일'로 내버려두어서는 안된다. 인류애적인 자비가 필요하다.

시론

통일교육 방향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인들의 북한관에 일대 혼란이 일고 있다. 종래의 고정관념에 예상치 못했던 큰 변화가 발생한 것이다. 큰 변화란 세 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김정일 신드롬' 등 혼란

첫째, 북한 집권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인식의 충격적 돌변현상이다. 그동안 한국인은 김 위원장을 괴팍한 성격의 소유자, 피에 굶주린 독재자, 포악한 냉혈동물, 언어장애자, 안하무인격 등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6월 정상회담을 통해 그의 이미지는 뒤바뀌었다. 김 위원장은 소탈한 성격, 매우 명석, 예의바른 겸손한 사람, 부드러운 인상, 합리적, 인간적, 믿을 만하고 유머감각이 뛰어난 사람으로 부각되었다.

정용석
〈단국대 정치학과 교수〉

둘째,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김대중 정부가 의도적으로 남북간의 화해협력 분위기 조성 쪽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분단 이후 최초로 열린 정상회담과 부드러웠던 평양 분위기를 놓치지 않고 후속적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가능한 북한을 자극하는 정책이나 표현을 삼가코자 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속개를 통해 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 그리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내친김에 조성해야 한다는 욕심으로 북한의 비위를 건드릴만한 정책이나 표현은 자제하려 한다.

셋째, 화기애애했던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통일의 길로 연결 될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화해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같은 세 가지 변화는 통일교육도 변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한다. 그러나 통일교육은 매우 신중히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평양회담을 보도하는 언론매체들이 흥분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통일교육은 결코 들떠서는 안된다. 어떤 사람은 중심을 잃은 신문들의 보도 및 논평 기사를 보고 "마치 평양의 노동신문과 같다"고 개탄한 바 있다. 통일교육도 그렇게 중심을 잃고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을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하듯이 백년을 내다보고 긴 안목에서 설정되어야 한다는 데서 그렇다. 그런 맥락에서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통일교육은 무엇보다 들뜨지 말고 긴 안목에서 설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통일교육은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교육내용과 방향도 적응되어야 하지만, 변화의 본질을 면밀히 파악해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김정일의 계산된 제스처에 일반 여론이 흥분한다고 해서 거기에 통일교육도 덩달아 춤을 추어서도 가치관의 혼란만 부를 뿐이다.

물론 평양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크게 호전될 수도 있다. 그래서 기대되는 호전 양태에 맞추어 교육내용도 희망적으로 편성될 수 있다. 그러나 남북한 관계가 지난 55년동안 전쟁과 증오 그리고 대결과 불신으로 굳어져 왔음을 상기할 때, 단순히 54시간 동안 두 정상이 한 악수와 포옹으로 말끔히 해소될 수는 없다. 동서독의 경우도 양국정상들의 한차례 만남으로 모든 방향이 뒤바뀐 것은 절대 아니다. 집 짓는데 벽돌을 쌓아가듯 오랜 인내와 시간이 요구된다. 김대중 대통령도 이런 인내와 시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평양서 돌아오면서 분명히 피력한바 있다.

따라서 정상회담 후의 통일교육 내용은 금방이라도 모든 것이 다 잘됐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서는 안 된다. 정상회담의 긍정적 측면을 반영해 주되 북한의 남조선 적화 속성은 변치 않았음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

들뜨지 말고 긴 안목으로

실상 이번 평양회담을 통해 북한은 변화의 이중성을 여실히 드러냈다는데 유의해야 한다. 하나는 남한을 상대하면서 실리를 챙긴다는 변화가 그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부의 체제와 대남 적화 노선은 아직 변치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통일교육은 겉으로 나타나는 변화와 속으로 변하지 않는 내용을 신중히 가려내 국민의 통일 대비의식에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통일교육은 통일에 대비한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안보 교육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술선식(2개월 50만원), 술효소정액(2개월 50만원)
약수영진고(2개월 100만원), 치선왕기환(3개월 50만원)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승(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를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천일지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뵈온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번만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 혜명 합장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 정가 오십만원(7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
▣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대구여래한방)

의료법인 효성 양방 · 한방병원

문의전화 : (053)655-2227, (011)808-8880
(이사장 비서실) ☎ (052)254-2600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세사미놀」성분을 대량 다

세사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물질로 지금까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불치병(병명을 못찾는 분), 기관지 천식, 위장병, 정신 질환, 간질, 중풍, 고혈압, 당뇨 치료문의
무료진맥 · 완치!!